

대학에 CIO가 없다



장 경 태

오늘날 정보기술은 기업에 있어서 경쟁력 가아화수단으로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최근 정보통신기술을 경영전략으로 잘 활용하여 특히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크게 성공한 사례를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된다.

이렇게 경영에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성공하는데는 CEO 못지않게 CI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은 물론이다. 경영전략에 따른 정보화전략을 세우고, 또한 최신의 정보기술을 최대한 이용하여 경영전략을

약력 : • 75~79 해테제과(주) 전산실장 • 79~83 대우중공업(주) 차장 • 83~93 대우자동차(주) 이사 • 93~95 대우정보(주) 이사 • 현재 위즈정보기술(주) 대표이사

세우도록 최고경영층에 조연하고, 사용자 부서를 설득하고, 수많은 정보기술을 이해하고 조달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은 기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힘든 CIO의 역할이라고 하겠다.

한편 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대학 또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대학으로 탈바꿈하여야 하며, 그러기위하여 가상대학 구축, 디지털 라이브러리 구축, VOD 시스템 구축 등을 비롯하여 정보화에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서는 대학이 존립할 수 없다는데는 대부분 대학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대학의 정보화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추진에 있어 염려되는 바가 많다.

그 중요성에 비해 정보화에 대한 예산의 부족(특히 S/W에 대한 예산부족), 조달에 있어서 최저가 입찰의 문제, 업무량에 비해 전산 기술요원의 절대부족, 교수/교직원들의 정보화에 대한 수용자세 등 많은 문제가 있겠으나 그 중에도 가장큰 문제점은 CIO의 운영상의 잘못이라 하겠다.

대학에서 CIO를 운영하는데 있어 첫 번째 문제는 아직도 전자계산소장으로 부르며, 컴퓨터나 N/W의 운영관리책임자 정도로 생각하는데 있다. 이는 전자계산소를 구성원들이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있어 컴퓨터 파워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부서의 기능으로 만 여기는

잘못된 생각에서 연유한다고 보겠다.

두 번째는 적성에 맞지 않는 교수가 종종 CIO에 임명되는 일이다. 정보화에 관하여 최고경영층을 설득하고, 타보직교수들의 이해를 구하며, 정보화의 가치를 들고, 조직내의 마당밭이 되어 뛰어다닐 책임자가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는 보직기간이 너무 단기간이다. 임기를 다 못채우고 일년 이내에 수개월에 한번씩 교체되는 일이 반복되는 학교도 있다. 가능하면 중임, 삼임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정보화의 문제점으로 열거한 예산부족이나, 최저가입찰의 문제도 CIO의 능력따라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때 대학정보화의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CIO에게 달려있다고 보겠으며, 섭외설득력과 리더십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정보화의 기수, 정보화의 전도사를 CIO로 선정하고, CIO가 정보화에 전체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도록 컴퓨터, 데이터통신, 음성통신, 도서관등의 정보통신에 관련된 모든 관리기능을 통합하여주고, 그 사람이 일관성있고 지속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임기를 충분히 길게 하여 주는 것이 대학의 정보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또한 실무적인 추진 내지는 정보시스템구축에 있어 실무기술요원 절대 부족의 문제는 현재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수명의 전산요원으로는 불가능하며, 교수나 아마츄어일 수밖에 없는 대학원생으로도 안되는 일이며, 적

절한 SI업체나 컨설팅업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